

중한 근대 상징 시인론

A Study on Sino-Korean Modern
Symbolist Poets

범위리 저



민족출판사

중한 근대 상징 시인론

A Study on Sino-Korean Modern
Symbolist Poets

민족출판사 출판발행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2009년 6월 제1판 2009년 6월 북경 제1차 인쇄

절지: 880mm×1230mm 1/32

전자: 7.125

자수: 185천자

값: 23.00원

ISBN 978-7-105-10127-6/I·2051 (조216)

(편집실전화: 58130534; 발행부전화: 64211734)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中韩近代象征诗人论: 朝鲜文 / 范伟利著. —北京:
民族出版社, 2009. 6

ISBN 978-7-105-10127-6

I. 中… II. 范… III. 诗歌—比较文学—文学研究
—中国、韩国—近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07.22 I312.607.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9)第100332号

策划编辑: 朴文峰

责任编辑: 金京植

封面设计: 李 峰

出版发行: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地 址: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网 址: <http://www.mzchs.com>

印 刷: 迪鑫印刷厂印刷

经 销: 各地新华书店经销

版 次: 2009年6月第1版 2009年6月北京第1次印刷

开 本: 880毫米×1230毫米 1/32 字数: 185千字

印 张: 7.125印张

定 价: 23.00元

ISBN 978-7-105-10127-6/I·2051(朝216)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중·한 근대 상징 시인론

범위리

2008년 8월

서 문

범위리(范偉利) 씨가 오랜 동안에 걸친 한국 유학의 결실로 본서와 같은 훌륭한 저작을 발간하게 됨을 가슴 뿌듯한 감동과 함께 충심으로 경하(慶賀)해 마지 않는다. 그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이 저작의 내용이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맺은 인연의 특별함이 마침내 아름다운 꽃으로 개화했다는 점이다.

내가 범위리 씨를 알게 된 것은 1998년의 일이다. 그때 그는 한국의 동덕여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의 요청으로 내가 그의 지도교수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0여 년간 나는 그를 묵묵히 지켜보며 같이 학문의 길에 정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는 그에게 때로는 눈물이 나도록 질책과 비판을 서슴치 않았고 때로는 환한 웃음으로 격려와 상찬을 주기도 하였다. 강의시간 이외에도 자주 만나 격의 없는 토론으로 그의 면학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그 무렵만 해도 서울대 국문과 대학원엔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범위리 씨의 서울대 생활은 아마 막막하고 고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난관을 극복하여 마치 선철(銑鐵)이 강철로 거듭나듯 10여 년전의 풋내기 면학도가

이처럼 실력 있는 한국 문학 전문학자로 당당히 서게 된 것은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서는 한국과 중국의 근대시 형성에 있어서 서구 상징주의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를 이 시기 대표적인 시인이자 시론가인 한국의 김억과 중국의 이금발을 통해 비교 문학적 방법으로 논구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들 시인은 단지 서구 상징주의를 자국에 소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 자신 상징주의 시 창작을 실천하여 그들의 근대 문학사에 새로운 시의 유형을 정착시킨 분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중국의 근대시 형성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말해도 무리는 아니다. 범위리 씨는 이와 같은 양국 문학사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그 구체적 실상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매개자로서 일본의 역할은 어떠했는지를 꼼꼼히 밝혀내고 있다.

범위리 씨는 이를 위해 우선 많은 자료들을 섭렵하였다. 그리고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고증으로 김억과 이금발의 문학세계와 양국의 문화사적 상황을 분석하는데 잘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본서를 통해 같은 프랑스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김억이 베를렌느에게 경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금발은 왜 보들레르에게 경도했는지, 김억의 사랑이 플라토닉한 것에 비해 이금발의 사랑은 왜 관능적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통 털어서 본서가 이 분야 연구의 최초 업적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이를 출발점으로 해서 한국과 중국의 근대 문학 연구가 한 차원 높이 진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범위리 씨는 중국 한족(漢族)으로서는 최초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과에서 한국 현대 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장

학자이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에서 범위리 씨의 중국내 학문 활동에 대한 기대는 크다. 지금까지 10여 년간 그의 면학 활동을 지켜본 필자로서는 그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앞으로 이 분야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한번 본서의 출간을 축하드린다.

2009년 3월

서울대 인문대 명예교수
전 한국시인협회 회장
전한국시학회 회장 **오세영**

국 문 초 록

본고는 20세기 초 한·중 시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시인, 김억(金億, 1896—?)과 이금발(李金發, 1900—1976)의 시문학 적 위상과 그들의 작품 세계에 나타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 보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억과 이금발은 각각 일본과 프랑스에 유학하고 상징주의 시론을 이론적인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시 창작에 힘을 쏟아, 한·중 근대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억과 이금발은 시대적, 사회적 조건의 유사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에 담겨 있는 현실과 이상, 전통과 현대, 근대와 반근대 등의 가치 속에서 취했던 행동의 양식 면에서 볼 때도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두 시인의 프랑스 상징주의 수용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는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한·중 두 나라의 근대문학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1에서는 상징주의 수용 과정에서 드러난 한·중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두 나라 모두 중개자의 위치에 선 일본 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은 기본적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 외에도 프랑스나 미국, 영국 등을 통해 작품과 이론을 도입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보다 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또한 한국은 전신자 역할을 했던 김억이 베를렌느에 경도되어 상징주의 초기에는 베를렌느의 영향이 짙게 나타났지만, 중국은 이금발이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아 창작한 상징시가 소개되면서 초기에는 보들레르의 영향이 강하였다.

II-2에서는 김억과 이금발의 상징주의 시론을 크게 ‘주관과 찰나의 강조’, ‘예술 지상주의적 태도와 데카당스에의 경도’, ‘애매성과 신비성에의 몰두’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김억과 이금발은 시를 창작하는 데 있어 시인의 주관을 중시하였으며, 찰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시가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김억이 말하는 찰나의 시론은 이금발의 영감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데 김억이 정감 면을 강조한 반면에 이금발은 이미지를 포착하는 데에 집중하여 김억의 상징시론은 낭만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금발의 상징시론은 이미지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김억과 이금발의 기본적인 문학 태도는 한마디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김억은 인생과 독립된 예술의 가치를 주장하였고 이금발도 도덕, 사회와 분리된 예술의 독립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억과 이금발은 서구의 상징주의를 소개하면서 데카당스에 경도하였다. 데카당스는 김억과 이금발의 허무와 비애 정조의 근원이다.

한편, 김억과 이금발은 프랑스 상징주의를 수용하면서 나름대로 시적 애매성과 신비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창작시를 보면 김억은 상징과 가까운 은유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금발은 상징적인 암시나 공감각적 기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III장에서는 김억과 이금발의 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랑, 표박, 죽음의 주제를 ‘관념과 관능’, ‘상실과 소외’, ‘허무와 죽음’이라는 표현 방법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김억과 이금발 시의 중요 소재인 사랑에 대한 추구는 김억이 관

넘적 사랑인데 반하여 이금발은 관능적 사랑으로 그 표현 방식을 달리 한다. 두 사람은 사랑에 대한 열렬한 숭배자였지만 김억은 정신적인 소통과 부재하는 님에 대한 회상과 상심을 주로 노래하였고 이금발은 육체적 접촉과 원초적 관능의 충족을 추구하였다.

김억과 이금발의 시 속에는 흔들림, 불안정, 자아의 상실 등 이른바 떠흐름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현실에서 정신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떠돌며 안주할 곳을 찾아 헤맨다. 이러한 표박 의식은 김억에게는 조국 상실을 바탕으로 한 상실감에서, 이금발에게는 낯선 이국 생활에서 오는 소외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상실과 소외에 휩싸인 두 시인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기 이전의 시간과 공간으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데 그곳은 유년기의 고향이다. 그러나 김억과 이금발의 귀향은 육신의 귀향이 아닌 과거 공간에 대한 정신적 회상 차원에 머물고 있다.

김억과 이금발은 내면의 시간 의식을 통하여 허무와 죽음의 세계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는 순간적인 시간의 흐름 앞에서 두 시인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고 사랑과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였다. 김억의 ‘허무의 바다’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꿈’이라는 환상적인 세계라면 이금발에게 죽음은 삶의 일부이고 오히려 추악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이러한 허무 의식과 죽음 의식은 김억에게는 동양적인宿命론의 영향이 더 큰 반면 이금발에게는 서구 상징주의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IV장에서는 김억과 이금발의 시 속에 투영된 내면의식을 ‘어둠의 공간’, ‘영혼의 문제’, ‘부재 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김억과 이금발에게 황혼과 밤은 중요한 시적 제재로 등장한다. 밤 시간은 두 시인에게 똑같이 안식과 공포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김억은 석양 무렵과 밤을 선호하여 대낮보다 밤 풍경을 묘사하

는 시들을 많은데, ‘님’을 만나는 시간 배경이 거의 밤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김억은 황혼녘의 우수와 밤이 초래하는 공포스런 분위기를 자주 차용함으로써 상실감을 보다 증폭시키고 심란하고 혼란스런 내면세계를 표현하였다. 이금발도 김억과 마찬가지로 낮 시간에 대한 거부감과 밤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황혼에서부터 시작된 밤은 추악한 현실 세계를 덮어 가려 현실 세계로부터 느끼는 초조와 공포, 혐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식처와 도피처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이금발의 초기 시부터 등장한 공포의 밤은 이금발의 내면세계를 보다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김억과 이금발은 ‘영혼’, ‘영’, ‘혼’ 등의 말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시 속에 등장하는 ‘영혼’은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작가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유희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은유적인 기법으로 사용되어 ‘영혼’은 ‘육체’의 물질성과 대비된 순결, 고결, 풍성의 의미를 띠고 따라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 자체로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김억과 이금발의 작품 곳곳에는 부재의 양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죽음 의식의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멸되어 가는 상태와 무의 상태에 접근할 수 있는 청각, 시각, 공감각 등 여러 감각들을 통해 부재와 죽음 의식을 표출한 것이다. 이러한 감각화 된 부재 양상들은 더 나아가 자아까지 포함하게 되는데 김억과 이금발은 자신들의 권태, 무기력함 등을 통해 부재의 자아를 그리고 있다. 이러한 부재의 공간 속에서 두 시인은 자신의 무력감과 왜소함, 그리고 미래와의 단절감을 처절히 체험하게 되고 소멸과 몰락의 애수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주요어 : 상징주의, 수용, 사랑 · 표박 · 죽음, 어둠, 영혼, 부재.

목 차

서문/1

국문초록/1

I. 서론/1

1. 문제 제기/1

2. 연구사 검토/5

3.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18

II. 상징주의 시론/21

1. 한국과 중국의 상징주의 수용/21

2. 김억과 이금발의 상징주의 시론/28

III. 동병상련으로서의 세 주제: 사랑과 표박 그리고 죽음/54

1. 관념적 사랑과 관능적 사랑/54

2. 상실 의식과 소외 의식/80

3. 허무 의식과 죽음 의식/101

IV. 내면세계의 시적 형상화/119

1. 어둠의 상징 공간/120

2. 관념 지향적 세계와 ‘영혼’의 문제/140

3. 부재 의식의 감각화/165

V. 결론/190

참고문헌/199

I. 서론

1. 문제 제기

본고는 20세기 초 한·중 시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시인, 김억(金億, 1896—?)과 이금발(李金发, 1900—1976)¹⁾의 시문학적

-
- 1) 李金发的 本名은 李淑良이다. 金发, 肩阔, 兰帝, 弹丸, 瓶内野, 蛟三郎, 片山潜雀 등은 필명이며 广东省 梅县 출신이다. 1900년에 화교 집안에서 태어나 매현에서 보통학교를 다니다가 1918년 홍콩으로 가서 교회학교에서 영국식 정규 교육을 받게 된다. 1919년에는 프랑스로 미술 유학을 가서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프랑스 상징주의시에 접근하게 된다. 1920년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이금발은 지속적으로 신시를 쓰는 데 몰두하여, 1923년 2월에는 99수의 작품과 몇 편의 译作으로 시집 《가랑비(微雨)》를 편집해서 중국으로 보냈는데 주작인(周作人)의 도움으로 1925년에 출판되었다. 그는 이어서 1926년과 1927년에 《행복을 위한 노래(为幸福而歌)》와 《식객과 흉년(食客与凶年)》을 출판하였다. 1925년에 파리에서 중국으로 돌아온 李金发은 상해에서 미술 전문학교 교수로 있었지만 雕刻 학과의 학생 모집이 안 돼서 곧바로 실업자가 되었다. 1927년에는 국민정부가 건설한 中央大学의 원장인 蔡元培의 대학원 비서로 되었으며 1928년 1월에는 조각과 문학 종합잡지인 《美育》을 창간하여 1929년 10월까지 제3기를 출간하게 된다. 1932년에서 1934년 사이에는 《现代》 잡지에 시작품을 발표하였다. 1938년 越南으로 도피했다가 1940년 돌아와 1941년에 문예잡지 《文坛》지를 창간하였다. 1944년에 국민정부의 이란 대사관 2등 비서로 역임되어 파견된 이후로 다시는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异国를 떠돌아 다니면서 생활하다가 7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그의 저작으로는 3권의 시집 외에도 《岭东恋歌》(民谣诗集, 光华书局, 1929.), 《异国情调》(诗集, 商务印书馆, 1942.), 《雕刻家米西盎则罗》(传记, 商务印书馆, 1926.), 《意大利及其艺术概要》(艺术史, 商务印书馆,

위상과 그들의 작품 세계에 나타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 보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억과 이금발은 한·중 양국의 시가 전·근대의 틀을 벗고 근대시로 전환하는 데서 선구적 역할을 한 시인들이다. 김억은 “한국 근대시 형성 과정에 있어서 그 차원을 한 단계 높여 주었다.”²⁾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금발 역시 “근대 중국 상징주의시는 李氏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신 시계에서 그는 상당한 공헌을 했다.”³⁾고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김억과 이금발은 한·중 근대시 형성기에 있어 상징주의 사조의 수용과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들이 창작한 작품들은 당시와 후세의 문단에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근대 문학에서 가장 먼저 발전을 이룬 것은 시였다. 1920년을 전후한 시기에 주로 일본에 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수입, 소개된 상징주의, 예술 지상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와 같은 서구 문예 사조는 초창기 한·중 근대 문학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억과 이금발은 이 사조들 중 특히 프랑스 상징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두 시인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한·중 두 나라의 상징주의 수용 양상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근·현대 문학의 비교 연구는 영향 관계의 논증이라는 종래의 틀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검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⁴⁾ 한국과 중국은 지역적 인접성과 문화적 공통점으로 인하여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발전 경로에서 상호 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

1928.), 《德国文学ABC》(文学史, 世界书局, 1928.), 《鬼屋人踪》(小说, 与他人合集, 1949.), 《飘零阔笔》(诗文集, 侨联出版社, 1964.) 등이 있다.

2) 오세영, 「한국 낭만주의시 연구」, 일지사, 1980, 235쪽.

3) 苏雪林, 〈论李金发的诗〉, 《现代》3卷 3号, 1933.

4) 조동일, 「비교문학의 방향전환 서설」,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1991, 9쪽.

다. 특히 과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고전 문학의 전개는 한자라는 언어적 인식과 공통적 문화를 형성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세기 말, 양국은 오래 전부터 유지해 온 밀접한 관계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양국은 안으로부터 싹트기 시작한 근대적인 요소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 채 제국주의열강에 개항을 하게 된다. 한국은 1876년 개항 이후 1910년 ‘한일합병’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전환 과정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국권을 빼앗겼고 같은 시기에 중국도 ‘아편전쟁’과 ‘청일전쟁’ 등 한국과 유사한 내외환을 겪으면서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모해 갔다.

이러한 시대 상황 아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이루어진 한·중 양국의 문학은 봉건 사회의 붕괴와 신문화의 창조라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상황을 대변하게 된다. 한·중 신문화운동은 각각 ‘3·1’ 운동과 ‘5·4’ 운동 이후 전면적인 신문화운동으로 확대되었는데 특히 문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여러 서구 문예 사조의 수용이다. 서구에서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순차적으로 전개되었던 문예 사조가 한·중 양국에는 약 20, 30년 동안에 급격히 수용되면서 각 문예 사조 간의 혼류 양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수용 양상을 살펴보면 양국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문예 사조가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문예 사조 중 특히 양국에서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입한 최초의 문예사조가 바로 상징주의였다. 한·중 작가와 이론가들은 서구의 상징주의시를 번역·소개하는 한편 상징주의 시 이론을 전개해 나갔으며 그들 스스로도 상징주의 시를 창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문단의 상황 속에서 김억과 이금발의 시 창작은 독보적이었다. 이들은 각각 일본과 프랑스에 유학하고 상징주의 시론을 이론적인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시 창작에 힘을 쏟아 한·중 근대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억과 이금발은 이처럼 시대적,

사회적 조건의 유사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에 담겨 있는 현실과 이상, 전통과 현대, 근대와 반근대 등의 가치 속에서 취했던 행동의 양식 면에서 볼 때도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두 시인의 프랑스 상징주의 수용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은 한·중 두 나라의 근대 문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상징주의 시의 수용은 한·중 양국 문학에 있어서 단순한 문예 사조의 이입이나 기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시 문학이 서구 지향적인 것으로, 세계 개방적인 것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상징주의가 소개되기 전까지 두 나라의 문학은 계몽주의 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시 문학에서는 한국의 신체시와 중국의 신시 등 정형시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형을 모색하는 노력들이 전개되었지만 자유시의 형식과 내용을 정립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1918년부터 김억을 통해 상징주의 수용이 본격화되고 그 여파가 1920년대 초기 문단을 풍미함으로써 한국 문학은 근대 문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중국에서는 상징주의가 다른 서구 문예 사조와 함께 혼류된 상태로 이입되었는데 1920년대 초 신시 창작의 부진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추진시켜주었다. 양국의 작가들은 서구 상징주의 시와 이론들을 통해서 시 본연의 요소인 상징성과 음악성 등을 자신들의 창작시에 담기 위해 모방과 창조를 계속하게 되는데 상징주의의 수용은 한국의 신체시와 중국의 신시를 자유시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상징주의에 대한 한·중 두 나라의 연구는 수용에 대한 평가라든지 수용 양상 등이 주요 항목을 이루고 같은 상징주의의 영향 아래서 발생한 양국의 상징주의 시의 비교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고는 20세기 초 한·중 양국의 상징주의의 대표 시인인